

러진테럽터스의 뉴 장르 공공미술에 나타난 환경색채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Color of New Genre Public Art in Luzinterruptus' Work

Author 김선영 Kim, Sun-Young / 정회원,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explore way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urban life by analyzing the Luzinterruptus's work looking for 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olor and society. The street artist Luzinterruptus was born in Spain, is a leader in the field of New Genre Public Art brush on a canvas of light in the night. They should seek the views of other common color system and color environments. The method of research is urban design, we consider the concept of the public good understanding, and New Genre Public Art. It also analyzes the environmental color of Luzinterruptus to take advantage of the phenomenology by David Katz color classification. The scope of the thesis i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works featured in their website and webzine. Then select a sculpture installation information is stated on the environmental color of their work. The role of environmental color in their work is not an aesthetic experience of harmonious urban landscape was seeking Public Art. The citizens of the area and the installation work themselves. Also it listed as demolition after the exhibition to realize the difference with other people and take advantage to environmental color. Therefore, they the contemporary agenda in many part of narrative takes in the garbage or disposables that you can easily look at our surroundings, In addition, citizens are directly experiencing the fantastic custom-made lights and colors and objects of the oversize as a potential recalls memories. Thus, the use of environmental color comfortable life there is horizontal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citizens' critical perspective of the 21st century cumulative cities.

Keywords 러진테럽터스, 뉴 장르 공공미술, 환경색채
Luzinterruptus, New Genre Public Art, Environmental Colo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도시는 사회 경제구조와 함께 자유주의를 실현하였다.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이처럼 지나치게 도시가 비대해지면서 인간의 삶은 도시 권력에 매몰되어 마치 인류가 뱀어 낸 가래침처럼 변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위르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공공영역(public sphere)'으로 해답을 찾는다. 이 공공영역은 사적영역의 대응물이 아니라 사적영역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¹⁾ 즉 현재의 도시 모습과는 다른, 인류의 시작과 함께 사회·문화의 장으로서 삶을 영

위하는 도시 안의 '도시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세기 이후 도시는 특수성과 지역성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이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멈추고 무형의 인프라스트럭처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을 지향하고 있다. 이 중 시민과의 상호소통을 중요하게 여겨 교량, 터널, 도로, 건축 등 전문적이고 공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보다는 비전문적 협업이 비교적 쉬운 공공미술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뉴 장르 공공미술은 퍼포먼스, 이벤트, 해프닝, 설치, 비디오 등 뉴미디어 아트의 대중화로 시간성(temporality)을 추구하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인터랙티브 아트의 시간완충장치(suspension of time)를 가능케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누적도시-장기존속의 고밀도 거대도시-에서 나와 타자의 차이를 깨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8013732)

1)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eacon Press, 1985, p.17

닫고 서로 얽히어(intertwining) 사회적 관계가 층층이 쌓이면서 충돌하게 된다.²⁾

이러한 추세에 입각한 스페인 출신의 거리 예술가들로 구성된 리진테르터스는 보다 혁신적으로 도시의 문제에 접근하여 도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밤이라는 캔버스에 빛이라는 붓’으로 뉴 장르 공공미술을 피력한다. 그들은 표색계(color system)에서 출발하는 기존의 환경색채와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내포한다.

도시 거리의 적막한 밤과 대조되는 제작조명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작품을 분석한다. 이는 정량적 접근의 배색과 조화, 정성적 접근의 색채형용사 및 뉘앙스 등 보편적 색채 조사에서 탈피하여, 또 다른 이면해석에 이바지 하리라 믿는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의 과정은 작가들의 초기 아이디어와의 간극에서 나와 타자의 차이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 이는 누적도시가 지향하는 쾌적한 삶의 질과 맞닿아 있으리라 예견하며, 뉴 장르 공공미술에서 차지하는 환경색채의 위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본고는 색채에서 다루지 않았던 뉴 장르 공공미술의 환경색채를 탐색하여, 시각 예술의 본질인 이미지 표현에 따른 조형성, 시대적 조류와 전략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시간성, 다양한 분야와 협업에 의한 콜라주적 확장성 등 환경색채 요소를 도출하여 도시의 환경색채에서 실제로 다루어야 하는 가치를 재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고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도시 전략가들에게 뉴 장르 공공미술에서 환경색채 의의를 찾고, 몸의 충돌에서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환경색채로 표현하는 리진테르터스의 작품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도시 디자인과 공공성의 이해로 뉴 장르 공공미술을 고찰한다. 색상·명도·채도 등 물리적 구분에서 색채지각 3요소의 개념을 환기시켜, 데이비드 카츠의 색 분류를 토대로 그들이 지향하는 환경색채의 접근 경로를 마련한다. 즉 표색계적 조사나 뉘앙스에서 벗어나 그들이 선호하는 공간색과 광원색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환경색채 분석과 차별시킨다. 연구 범위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그들의 뉴 장르 공공미술 가운데 도시민과 협업한 설치 조형물로 선정하되, 그들의 홈페이지와 Dezeen 웹진에 소개된 목록 중에서 비교적 환경색채와 연계가 뚜렷한 작품을 선정한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설치물의 색채 아이디어와 조명 선택 등이 컨셉 스케치에서 설명된 작품을 우선한다.

2. 도시와 환경색채

2.1. 도시 디자인과 공공성

도시 디자인은 인간 내면의 자아와 외부세계를 보다 폭넓게 만드는 실체적 지역과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거주 및 생활 기반을 조율하는 기능과 더불어, 도시민 삶의 질과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총체적인 맥락이어야 한다. 이 때 공공성은 사회·문화·정치·철학 안에서 인간의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을 근본으로 타자와의 사이(in-between)를 인정하는 요소이다.

공공성의 뜻은 무엇인가.

우선 인민(공공)에서 파생된 라틴어 ‘푸블리쿠스(publicus)’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공식의’와 ‘공개, 개방의’로 나뉜다. 또한 공공은 정치지배체제를 위한 공적공간에서 출발하였으며, 로마 공화국은 최초로 공공영역을 현실화하였다.³⁾ 17세기에 이르러 ‘공공복지(salus publica)’의 ‘공동의(gemein)’에서 ‘공정복지, 공적이익, 공적질서’를 포괄한다. 기술문명의 발달로 18세기부터 정치행위는 경제활동 아래로 전도되어 국가와 시민을 상호 결합하는 중간영역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수반한다. 이처럼 공공성은 시대의 체계모니를 작동시켜 공적영역에서 사적 권리를 지킨다. ‘공공(public)’이 ‘공개, 개방, 대중’을 의미하듯 도시 디자인의 공공성은 사회문화 권력의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을 다루는 도시 디자인이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로 대변되는 국내 현실에서 공공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을 장식, 관리하는 관료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사적 개인을 공적 관심으로 확대한 공개적 소통이 발생한다.⁴⁾ 이는 ‘사이에 존재(inter-esse/self-interest)’로 공통 관심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므로, 공공영역은 경계구분을 떠나 도시민을 위한 무장소성(non-places)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공공영역에 사람들이 더 자주 오고 더 많은 활동으로 외부환경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

2.2. 색과 색채

색의 연구 분야는 다양하지만 색은 빛을 발하는 광원(light source), 빛의 반사 대상(object), 이 결과를 관찰하는 관찰자(observer)의 ‘색채지각 3요소’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색지각 요소에 따라 햇빛, 조명, LED, 스크린의 디스플레이 등 발광체에서 빛을 직접 보는 광원색, 빛의 반사로 이루어진 물체의 색인 물체색(표면색), 색유리나 셀로판지처럼 빛이 대상을 통과하여 보여주는 투과

2) Johann Heinrich Lambert, Neues Organon,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1764, p.79

3)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p.58-60

4) 齋藤純一, 公共性の政治理論, ナカニシヤ出版, 2010, p.14

색으로 구분한다.⁵⁾ 색은 가시광선의 명암과 분광 조성에 따라 색깔을 느끼는 빛의 주파수이며 스펙트럼의 조상 차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색은 관념이라 대상을 만날 때 실재하므로 색과 색채는 다르다.

『괴팅겐(Göttingen)실험현상학과』인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에게 영향을 받아 현상학적으로 색을 구분한 데이비드 카츠(David Katz)는 순수한 색만 있고 음영은 없는 면색(film color), 물체 표면에서 빛의 작용인 표면색(surface color), 특정한 과장이 강한 반사로 지각되는 금속색(metal color), 색유리나 셀로판지처럼 빛을 투과하는 투과색(transparent color), 거울에 비춰진 상인 경영색(mirrored color), 비눗방울처럼 외부에 간섭으로 내부에 빛이 갇힌 간섭색(interference color), 물체 표면 뿐 아니라 투명한 용적 안에서도 지각되는 공간색(bulky color), 발광 자체인 광원색(illuminant color)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면색, 표면색, 금속색, 경영색 등 텍스처와 광택의 표피색채(epidermic color), 투과색, 간섭색처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여러 겹들의 표층색채(layered color), 시-공간(time-space) 개념인 공간색, 광원색은 인터렉션색채(interaction color)로 구분한다. 또한 시-공간의 색채는 여러 시점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동시성, 상호작용과 부유 및 관입의 연속성, 속도와 움직임의 과정성이 있는 색채⁶⁾로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색채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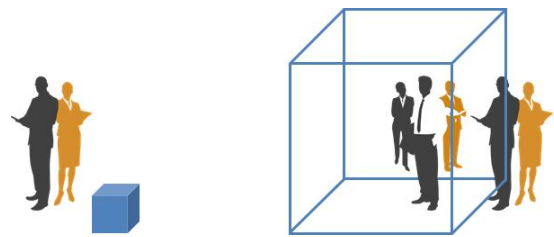
<표 1> 색채유형

| 구분 |
|---|
| 표피색채 (EC: epidermic color): 면색, 표면색, 금속색, 경영색 |
| 표층색채 (LC: layered color): 투과색, 간섭색 |
| 인터렉션색채 (IC: interaction color): 공간색, 광원색 |

2.3. 도시의 환경색채 개념

환경색채는 인간-환경 관계에서 인간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고 미적가치를 지키는데 필요 요소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색채사용과 관련한 환경문제이다. 특히 도시에서 환경색채는 적절한 균형과 쾌적한 안정을 위한 미적 체험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정보 전달로 인간 삶을 지원하는 중요 장치이다.⁷⁾ 즉 환경색채는 각 지역의 정체성 수립과 점진적 개발에 시각적 편안함과 심미적 조화로써, 도시경관 친화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환경

색채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예컨대 대자연의 숲 속에 있는 붉은 건물은 대상색채일 확률이 높은 반면, 대도시의 붉은 건물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보행로 주변의 식재나 공공디자인, 혹은 인간행태가 대상색채일 수 있다. 즉 시각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그리고 패션디자인에서 색채는 매스(mass)이다. 즉 대상색채만 존재한다. 그러나 휴먼스케일보다 큰 도시의 환경색채는 매스와 볼륨(volume)이다. 즉 대상색채와 배경색채가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새롭게 환경색채를 논의해야 하는 대목이다.



<그림 1> 매스색채와 볼륨색채

위의 좌측 그림은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의 매스색채를 표현한 것이고, 우측 그림은 도시디자인의 볼륨색채를 표현한 것이다. 매스색채란 대체적으로 인간의 치수보다 작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대상색채만 존재한다. 이때 매스색채가 표층색채(LC)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볼륨색채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어반스케일(urban scale)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볼륨색채는 아니다. 볼륨색채는 반드시 주변의 배경색채와 대상색채가 관계를 맺어 환경색채의 톤과 질료의 재질감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 Necker Cube

<그림 2>를 몇 초간 응시하면 처음에는 흰색의 사각형이 돌출되어 보이다가 다시 회색이 튀어나와 보이고, 초점을 흐릿하게 하면 여러 겹의 사각형이 무작위로 보인다. 이는 2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 이상의 지각 습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2차원 정보는 망막 위에서 다양한 시각자극이 발생한다.⁸⁾

이러한 원리로 대상색채와 배경색채의 경계가 처음에

5) 김선영, 빛 번짐을 적용한 블러색채의 특성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8권 1호, 2014, p.6
 6) 김선영, 현대건축의 시-공간적 색채체계 연구1,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30권 1호, 2016, p.13
 7) 김흥기, 환경색채계획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p.21

8) 김선영, 마크 로드코의 색면추상에 표현된 색의 확장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1호, p.243

는 각각 구분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찰자가 선택하는 색채에만 집중한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상색채와 배경색채는 동시에 지각된다. 이 때 지각 거리의 깊이에서 톤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동 속도의 간격에서 톤의 재배치가 진행된다. 즉 도시의 환경색채는 표색계로 논하는 절대적 색채로만 이해할 수 없다.

3. 뉴 장르 공공미술과 환경색채

3.1. 뉴 장르 공공미술의 전개

예술은 공공의 기원과 유희를 담고 있으므로 인류의 삶과 동시에 시작했다. 물론 모더니즘 태동과 아방가르드 정신에 입각한 순수미술의 추구는 조각, 회화, 건축의 협업을 와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공공미술은 사회·문화 변화와 갤러리들의 노력으로 참여와 소통의 예술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공공미술은 시대의 흐름과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파리의 「68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찾기 위해 존 윌렛이 처음 사용한다. 그는 예술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수의 사람들뿐 아니라 관람자들의 동참을 위한 공공미술 개념을 공식화하고, 「공공미술 자문위원」 구성을 정부에 제안한다. 이후 공공미술이라기보다 건축물의 미적 가치를 제고하는 플립 아트(plop art)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는다.⁹⁾

1960년대 후반부터 공공미술은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도시에 투입되고,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에 흥미와 즐거움을 주어 시민정서를 반영하는 콘텐츠의 기능을 한다. 또한 마천루, 공원, 광장에 작품을 설치하여 어반 스케일에서 느껴지던 위화감을 완화시켜 쾌적한 보행로로 대중과 거리를 좁힌다.

1970년대 이르러 예술가와 비평가는 미술과 공간 관계에 문제제기로 Street Paving, Street Furniture, Art Rail, Wall Painting Art에서 기금제를 도입한 도시계획으로 관람자를 사용자로 변화시킨다.

1990년대 이후 비로소 ‘행동하는 문화와 심미적 감수성이 전제된 사회·정치적 성향의 미술활동’을 뉴 장르 공공미술로 명명한다. 모든 매체를 활용하며 도시인의 삶과 직접 연관된 이슈와 소통하여 물리적 장소에서 사회적 이슈를 분석·비판하는 맥락으로 옮겨진다.

9) John Willett, Art in A City,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7, p.37

<표 2> 공공미술의 변화(문화관광부, 2005)

| 구분 | 특징 |
|------------------------------------|---|
|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 ·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적 가치 제고 · 프랑스 1%법(1951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 ‘건축 속의 미술프로그램’(1963년) · 순수미술 위주 |
|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 | ·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장소 활성화 ·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프로그램(1967년) · 순수미술 위주에서 공공장소의 콘텍스트에 적합한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 형성 |
|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 · 도시계획의 중요 요소로 공공미술 활용 · 기금제(pooling system)가 도입됨 · 라 데팡스, 바르셀로나, 필라델피아, 델러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 |
| 뉴 장르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 ·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꾸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장르도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 비디오, 공연 등 확장 |

3.2. 피겨-그라운드(Figur-Grund)의 환경색채

2장에서 고찰하였듯, 환경색채는 대상색채(F)와 배경색채(G)로 구분한다. 배경색채는 식재와 토양으로 대부분의 식재는 계절 변화에서 공통된 순환의 질서를 보인다. R-B사이의 고유색은 꽃에서만 지각되고, 식재는 Y 계열이 포함되어 B-G사이의 고유색은 실제 자연색채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식재는 YR계열에서 시작하여 YR계열로 끝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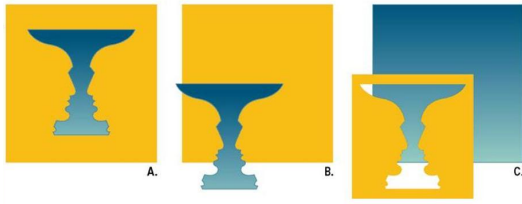
반면 도시는 지역별 대지, 하늘, 기후 등의 풍토색(風土色)에서 비롯한 지역색(地域色)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대도시의 대지는 차로와 보행로이며, 하늘은 마천루에 가깝고, 시설물과 보행자는 지역색을 무색하게 한다. 특히 조명과 뉴미디어는 빛의 변수를 극대화하여 환경색채의 흐름을 재편성한다.

이러한 환경색채는 ‘피겨-그라운드(Figur-Grund)’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에드가 루빈이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시각적 지각에서 최초 응용했다. 게슈탈트라는 용어는 크리스티안 폰 에렌펠스(Christian von Ehrenfels)가 에른스트 마흐(Ernst Mach)의 『감각의 분석(Die Analyse der Empfindungen, 1886)』에서 영감을 받은 이후 그라츠 학파(Grazer Schule)에게 인계된 ‘Gestaltqualität’에 유래한다. 즉 막스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가 기차 여행에서 구입한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¹¹⁾의 가현

10) Karin Fridell Anter, Nature's colour palette. Inherent colours of vegetation, stones and ground. Stockholm, Scandinavian Colour Institute, 1996, pp.66-69

11)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조명을 전기적으로 발생시켜, 회전 혹은 진동하는 물체를 관측하거나 회전 속도, 진동 주파수 혹은 유사한 주기량을 측정하는 계기. 회전체의 회전 주기와 조명의 명멸 주기가 일치하면 회전체는 정지한 듯이 보인다. 따라서 조명의 명멸을 가감하여 회전체의 회전수(진동체의 진동수)를 측정할 수 있다. 두산백과사전

운동(apparent movement)과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¹²⁾과 비슷한 원리이다.



<그림 3> Rubin's vase effect

위의 그림에서 A.는 중앙의 꽃병(F)과 마주보는 두 얼굴(G)의 실루엣이 명확치 않은 F-F, G-G의 구조이다. 반면 B.는 F가 꽃병이며 C.는 얼굴의 측면이 F이다. 이를 환경색채와 연관하여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A.”는 G-G의 구조다. F와 G를 각각 동시 지각하되, 학습이나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색채를 인식한다. 예컨대 보행자가 가로등, 표지판, 버스 배 등 주목할 경우 순서대로 인식한다. 이 때 F와 G는 서로 뒤바뀌기도 한다. 즉 선택 지각에 따른 표층색채(LC)의 동시성을 지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색채 연구인 공간은 있되 시간은 없는 관찰자 관점의 경관색채이다.

“B.”는 F-F의 구조다. 관찰자의 거리와 사용자의 이동을 배제한 제품디자인의 색채 분석에서 주로 활용하므로 정지된 화면의 균질한 측색인 표피색채(EC)이다.

“C.”는 F-G의 구조다. Necker Cube처럼 여러 겹의 F와 G가 무작위로 중첩되어 여러 겹들(F)의 합인 G와 하나의 F는 서로 관계한다. 학계에서 환경색채를 인공색채와 자연색채로 구분하지만, 녹지율을 고려하더라도 대도시에서는 인공색채는 70%정도이므로 G는 인공색채들의 합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 속도와 이동의 유동성에 의해 표피색채(EC)-표층색채(LC)-인터랙션색채(IC)를 모두 지각한다. 이처럼 피겨-그라운드 환경색채는 거저로서 선택지각의 동시성, 위치 불변의 절대성, 속도와 이동의 유동성 등의 속성을 지닌다.

<표 3> F-G의 환경색채

| 구분 | 유형 | 속성 | |
|----|-----|--------------------------------|-------------|
| A. | G-G | 표층색채(LC) | 선택 지각의 동시성 |
| B. | F-F | 표피색채(EC) | 위치 불변의 절대성 |
| C. | F-G | 표피색채(EC), 표층색채(LC), 인터랙션색채(IC) | 속도와 이동의 유동성 |

12) 여러 개의 자극이 있을 경우 객관적으로 정보의 모든 것을 지각하지 않고 자극을 선택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3.3. 뉴 장르 공공미술에서 환경색채 요소

본 논문의 2.3절에서 고찰한 바 환경색채는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다. 도시 디자인에서 환경색채는 미적 체험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정보 전달로서 인간의 삶을 지원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작품을 매개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상호작용하는 뉴 장르 공공미술의 환경색채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뉴 장르 공공미술은 물질로서 예술을 부정하는 비물질적 경향은 있으나, 시각 예술의 본질을 기본으로 한다.¹³⁾ 환경색채는 작품이 추구하는 이미지(image)를 직접 표현하는 ‘조형성(formativeness)’이 있으며, 심미, 장식, 명시, 시인, 유목의 세부요소가 있다.

둘째, 뉴 장르 공공미술은 예술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지만 도시 정책에 기반을 둔 정부, 관련 기관, 시민단체와 협업한다.¹⁴⁾ 작품은 더 이상 예술가들의 자율적 영역이 아니며, 시민들과 관계하는 삶의 일부로 내러티브(narrative)의 ‘시간성(temporality)’이다. 즉 예술가-정부-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과정이 존재한다.

셋째, 뉴 장르 공공미술은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꾸미기 등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한다. 이제 사적 내부인 갤러리에서 공적 외부인 거리로 나와 영화, 비디오, 공연 등 다양한 분야와 수평적으로 융합한다.¹⁵⁾ 또한 공공미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후·생태·환경·인종·종교·젠더 등 사회문화적 동시대의 담론과 조류를 전형적 비레나 사실적 스케일에서 벗어나 기술한다. 이러한 환경색채는 거대크기(over-scale)의 언캐니(uncanny)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환상적 체화로 잠재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감각의 콜라주(collage)화로 ‘확장성(expandability)’이 있다. 흥미, 체화, 기억, 환상 등의 세부요소가 있다.

<표 4> 뉴 장르 공공미술의 환경색채 속성

| 구분 | 특징 | 세부 요소 |
|-------------------------|--------------------------------|--------------------|
| 조형성: FO (formativeness) | 시각 예술의 본질인 이미지(image) 표현 | 심미, 장식, 명시, 시인, 유목 |
| 시간성: TE (temporality) | 시대적 조류와 전략의 내러티브(narrative) 형성 | 참여, 소통, 과정 |
| 확장성: EX (expandability) | 다양한 분야의 콜라주(collage)화 | 흥미, 체화, 기억, 환상 |

13) <http://www.tate.org.uk/learn/online-resources/glossary/n/new-genre-public-art>
 14) Lacy, Suzanne,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Newyork Thames and Hudson, 1991, p.56
 15) Thomas H. Sander, Social Capital and New Urbanism: Leaind a Civic Horse to Water, National Civic Review, vol..91, No.3, 2002, pp.213-234

4. 러진테럽터스의 작품 분석

4.1. 러진테럽터스의 작품 세계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Jose de Goya),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에서 보듯 화가의 붓은 때로 군인의 총보다 더 강력하다. 러진테럽터스는 바로 이러한 힘을 시사한다. 러진테럽터스(Luzinterruptus)의 의미가 interrupted light에서 비롯되었듯 그들은 ‘빛’과 ‘어둠’으로 환경색채를 기술하며 광원색을 기반으로 투과색, 간섭색, 공간색 등을 선호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밤거리를 캔버스로 빛을 붓으로 설치한다. 분석 대상은 그들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북, 인터뷰 등에서 환경색채의 아이디어를 언급하되, 동일한 재료로 비슷한 설치를 할 경우 보다 많이 이슈화된 작품을 선정한다.

<표 5> 작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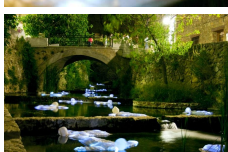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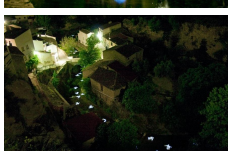
| NO. | 분석대상 | 년도 |
|-----|---|------|
| 1 | Public Toilet Intervention, San Ildefonsoof Spain | 2009 |
| 2 | Fishing Light, Maubeuge of France | |
| 3 | Floating Presences, Molinicos of Spain | 2010 |
| 4 | Malignant Shadows, Madrid of Spain | |
| 5 | Radioactive Control, Hamburg of Germany | 2011 |
| 6 | Pharmacy Herbs, Madrid of Spain | |
| 7 | Plastic Garbage Guarding the museum, Geserber Museum of Switzerland | 2012 |
| 8 | Pool on a background of Field of Barley, La Latina of Madrid | |
| 9 | Literature Versus Traffic, Melbourne of Australia | |
| 10 | Fishing in Light, Rivas Vaciamadrid of Spain | 2013 |
| 11 | Labyrinth of Plastic Waste, Katowice of Poland | 2014 |
| 12 | Plastic Island, Lumiere of London | 2015 |
| 13 | Rain Interactive, Brentford of Londo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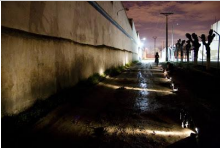
4.2. 러진테럽터스의 사례 조사

본 절은 도시의 문제점에 접근하되, 도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러진테럽터스의 환경색채를 분석한다. 그들이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인터랙션색채의 관점을 언급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분석항목은 작품의 개요를 논한 후 EC, LC, IC의 색채유형을 분석하고, FO,

TE, EX의 뉴 장르 공공미술의 환경색채 요소를 분석하였다.

<표 6> 작품 분석

| NO. | 이미지 | 유형 | | | 속성 | | |
|--|--|-----|-------|------------------------|------------------------|----------------------------------|----------------------------------|
| | | EC | LC | IC | FO | TE | EX |
| 1 |  | 표면색 | 투과색 | 광원색 | 빛이 없는 어두운 거리와 야광 조명 명시 | 시민의 공간 소통 | 봄비는 거리에 연캐논화장실 설치로 흥미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밤에는 매우 시끄럽고 혼잡한 지역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남성용 소변기 80개의 설치로 주변을 환기 • 디자인 방법: 의료용 소변기 안에 노랑 물을 담고 LED 조명의 매입 | | | | | | | |
| 2 |  | 투과색 | 공간색 | 나트륨 조명 의 시인성 | 짧은 퍼포먼스 | 떠있는 장의 상적 체험 | 떠있는 장의 상적 체험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Les Folies 2009 Festival 에 나홀 동안 전시로 자연 회기 전달 • 디자인 방법: 새장 하부에 나트륨 조명을 매입 | | | | | | | |
| 3 |  | 표면색 | 공간광원색 | 어두운 밤에 검정물 에 하얀 실물로 명시 | 설치해체 시 강을 오염시키지 않는 과정 | 강 주변의 물고, 오리, 어린 이용, 목조, 시민 등 과정 | 강 주변의 물고, 오리, 어린 이용, 목조, 시민 등 과정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영화와 음악의 Rizoma Film Festival에 작은 마을의 강에 부유시켜 초현실주의적 설치 • 디자인 방법: 총을 맞아 쓰러진 군인 형상의 80개의 부유물의 뉘앙스에 조명을 매입 | | | | | | | |

| NO. | 이미지 | 유형 | | | 속성 | | |
|---|---|-------------------|------------------|---|--|--|---|
| | | EC | LC | IC | FO | TE | EX |
| 4 |  | 표면색 | | | 가 로 이 등 없 는 거 리 에 조 명 요 필 성 의 명 시 | 보 행 와 자 조 용 소 통 | 음 직 이 는 그 들 + 자 림 로 로 미 유 발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인종·젠더·폭력·색수열리티를 그림자 화가인 카라 워커(Kara Walker)의 회화처럼 검정 마분지와 10개의 와이어 모빌을 이용하여 그림, 판화와 다른 이미지 구현 • 디자인 방법: 램프로 보행로의 어두운 벽면에 그늘+ 그림자 형성 | | | | | | | |
| 5 |  | 표면색 | | 공 간 색 광 원 색 | 인 크 기 의 오 브 제 유 목 | 병 자 봉 와 자 일 5 프 동 동 설 설 치 치 로 로 참 참 여 여 | 천 으 를 는 가 리 고 이 로 으 테 로 입 을 는 캐 니 벨 리 체 화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방사능과 원자력 발전소 위험성과 공포의 시각화를 특수보호장비를 한 인간 크기의 오브제 활용으로 30일간 Dockville Festiva에 설치 • 디자인 방법: 백개의 LED와 일루미네이트 | | | | | | | |
| 6 |  | 공 간 색 광 원 색 | | 거 리 를 초 색 으 로 변 화 시 키 는 심 미, 장 식 | Cris 와 Alex 의 도 움 로 설 치 및 해 체 참 여 | 형 광 막 대 기 조 체 험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하와 별을 볼 수 없는 빛 공해에서 착안하여 잠초(형광 막대기)를 악곡표지판으로 활용, 이 막대는 인공조명을 광합성으로 성장 • 디자인 방법: 초록 색조의 형광 막대기는 풀을 형상화 | | | | | | | |
| 7 |  | 표면색 | 투과 색 광 원 색 | 공 간 색 광 원 색 | 거 대 조 명 의 유 목 | 재 기 부 로 참 여 | 풍 선 조 명 의 체 화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박물관에 버린 비닐, 물병과 시민이 기부한 쓰레기 안에 조명, 헬륨을 주입 후 끈으로 연결하여 Oh, Plasticsack! Exhibition에 4개월간 풍선조명 설치 • 디자인 방법: 오천 개의 색색 비닐 안에 조명 매입 | | | | | | | |

| NO. | 이미지 | 유형 | | | 속성 | | |
|---|--|-------------------|-----------------|--|---|--|---|
| | | EC | LC | IC | FO | TE | EX |
| 8 |  | 투과 색 광 원 색 | 간 색 광 원 색 | 공 간 색 광 원 색 | 파 랑 조 으 로 시 인 성 | 어 이 과 과 부 부 들 들 공 공 실 실 참 참 여 여 | 린 들 모 의 동 동 치 치 여 여 미 체 와 와 협 협 의 의 유 유 발 발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빈부격차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 리모델링이 럭셔리 쇼핑몰 사업으로 변한 곳에 보리밭을 깔고 그 위에 6×4m 공공수영장 조성 • 디자인 방법: 2천 개의 유리컵, 병 안에 파랑색 물과 조명 매입 | | | | | | | |
| 9 |  | 공 간 색 광 원 색 | | 어 두 운 운 계 단 과 과 리 리 에 에 서 서 인 인 | 무 슨 이 이 별 별 어 어 는 는 지 지 지 지 물 물 가 가 실 실 간 간 동 동 과 과 소 소 통 통 | 체 화 와 와 선 선 환 환 상 상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공공도서관에서 폐기 처분한 만권의 책으로 사전공지 없이 게릴라성 설치로 바쁜 현대 도시인들에게 독서의 가치 전달과 책-사람, 어둠-빛, 문학-정체성 • 디자인 방법: 책 한권에 각각 2개씩의 LED 조명 활용 | | | | | | | |
| 10 |  | 투과 색 광 원 색 | 간 색 광 원 색 | 공 간 색 광 원 색 | 색 색 의 의 유 목 | 용 기 를 를 직 직 접 접 설 설 치 치, 환 환 하 하 는 는 참 참 여 여 | 직 직 접 접 공 공 공 공 고 고 물 물 고 고 기 기 를 를 잡 잡 미 미, 기 기 역 역, 체 체 화 화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다양한 모양, 색상의 플라스틱 인공호수에 인공물고기를 가득 채워 환경 이슈화 • 디자인 방법: 플라스틱 안에 담긴 물에 굴절, 증폭 | | | | | | | |
| 11 |  | 투과 색 광 원 색 | 간 색 광 원 색 | 공 간 색 광 원 색 | 거 대 조 명 의 유 목 | 직 직 접 접 민 민 의 의 설 설 치 치 와 와 해 해 로 로 재 재 용 용 의 의 체 체 험 험, 소 소 통 통, 참 참 여 여 | 빛 빛 의 의 미 미 로 로 체 체 험 험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하루 소비되는 육천 개 물병,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7×5m 금속모듈 안에 미로 형태로 Katowice Street Art Festival 설치 및 25명 이상 시민들이 시간대별로 규칙적 설치 후, 3일 동안 해체 • 디자인 방법: 주조색인 neon-blue, light-green로 조울 | | | | | | | |

| NO. | 이미지 | 유형 | | | 속성 | | |
|-----|--|---|-----|--------------|-----------------|-----------|------------------|
| | | EC | LC | IC | FO | TE | EX |
| 12 |  | 표면색 | 투과색 | | 어두운 바다에 조명으로 유목 | 열흘 안 시 참여 | 물 에 떠 다니는 쓰레기 기억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4만 톤의 플라스틱 병으로 10×15m의 직사각형 관형에 5천개 조명 설치로 여덟 번째 대륙을 생성하여 해양생물의 죽음과 생태계 파괴 방지 전달 • 디자인 방법: 플라스틱 병에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조도가 낮은 루미네이트 활용 | | | | | |
| 13 |  | 투과색 간섭색 | 광원색 | 거대인보조 조명의 유목 | 시민들과 함께 설치 | 연캐니한 체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컨셉: 3천개의 콘돔 안에 파랑 잉크와 조명을 담아 삶의 원천 표현 • 디자인 방법: neon-blue를 프레임에 매달아 조형성 확대 | | | | | |

4.3. 소결

2008년부터 인간의 삶과 근접한 일회용품과 직접 제작한 조명을 활용하여 도시환경과 사회문화 전반에 문제제기를 주도하는 러진테러터스는 도시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설치한다. 이 정크 아트(junk art)는 일반인들이 뉴 장르 공공미술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체험하면서 체화되고 잠재된 기억의 콜라주화가 일어난다.

「Public Toilet Intervention」, 「Fishing Light」에서

알 수 있듯 초기에는 외부의 도움 없이 내부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Floating Presences」부터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Radioactive Control」에서 본격적으로 러진테러터스의 예술가 집단 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예컨대 「Labyrinth of Plastic Waste」, 「Plastic Island」, 「Rain Interactive」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물병을 기부하고 「Plastic Garbage Guarding the museum」에서는 실제 생활 쓰레기와 기부 받은 일회용품으로 거대 풍선을 만들고, 「Rain Interactive」는 콘돔을 활용한 삶의 원천을 언급한다. 「Pool on a background of Field of Barley」부터 작품설치 시 시민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도시재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연출한다. 이처럼 도시재생은 작가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외의 콘텐츠는 일반인들과 협업하는 특징이 있다.

초기에는 EL, LC의 환경색채 유형이 두드러지나 2011년부터 IC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내는 공공미술품조차도 저명도, 중채도의 색조를 비롯한 모노톤을 지향하여 주변경관과 비슷한 톤의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일괄 처리하는 반면, 러진테러터스는 고명도, 저명도, 고채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그들의 색채가 고명도, 저명도, 고채도가 주를 이루어도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투과색과 간섭색을 활용한 매스색채의 이해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기 다른 형태가 무작위로 군집을 이룬 거대한 조명으로 피겨-그라운드를 적용한 빛과 그림자의 톤과 셰이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작품은 직접 참여하여 체화하므로 이미지의 조형성, 당대의 시간성, 협업에 의한 확장성 등이 존재한다.

5. 결론

러진테러터스의 뉴 장르 공공미술에서 환경색채의 역할은 일반적인 공공미술이 추구하는 미적체험이나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연출이 아니다. 그들은 초기 환경색채 아이디어를 제외하면, 설치부터 철거까지 시민들이 몸소 참여하여 나와 타자의 차이를 깨닫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과정은 작품이 추구하는 문제의식을 상기시키는 주요 가치이다. 따라서 동시대의 아젠다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회용품이나 생활쓰레기에서 착안하여, 상징적인 오브제로 연출하는 내러티브를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각예술의 기초인 조형성을 조명과 색채로 환원시키되,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설치 작품은 공통의 관심사를 보이는 사람들 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도시민들에게 환상적인 빛과 오버스케일의 오브제로 낯선 흥미를 유발시켜 잠재된 기억을 상기시킨다.

수많은 「색채가이드라인」과 지자체별로 「대표색」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현재, 누적도시의 올바른 팰렘시스트(palimpsest)적 방향은 수직적 정책과 사업진행이 아님을 본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영역은 사적영역의 대응물이 아니라 사적영역의 부분으로 이해하고 체화한 도시민을 포함해야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환경색채에 관심은 높은 반면, 관찰자 중심의 경관색채에만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뉴 장르 공공미술은 무형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창조도시를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시 정책과 전략 수

립의 물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미술가, 색채전문가, 도시계획가, 환경디자이너, 건축가, 사회문화전문가들의 협력이 형식적 차원을 넘어선 상호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의 수직적 경관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담은 수평적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무형의 인프라스트럭처의 도시재생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환경색채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기초 초석으로서 자리 잡기를 예견한다.

참고문헌

1. 김선영, 마크 로드코의 색면추상에 표현된 색의 확장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9권 1호, 239-246, 2013
2. 김선영, 현대건축의 시-공간적 색채체계 연구1,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30권 1호, 1-14, 2016
3. 김흥기, 환경색채계획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4. 문화관광부, 새 예술정책-시각예술분야, 2005
5. 박정은, 혁신도시 환경색채계획 기본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가을학술대회, 37-41, 2009
6. 齋藤純一, 公共性の政治理論, ナカニシヤ出版, 2010
7. Katz, David, The World of Color, London: Routledge, 1999
8. Rubin, Edgar, Synsoplevede Figurer, Copenhagen: Gyldendalske, 1915
9.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10. Rousseau, Jean-Jacques, Emile,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1762
11. Heinrich Lambert, Johann, Neues Organon,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1764
12. Willett, John, Art in A City,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7
13. Habermas, Jürge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he MIT Press: Reprint edition, 1991
14. Habermas, Jü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eacon Press, 1985
15. Fridell Anter. Karin., Nature's colour palette. Inherent colours of vegetation, stones and ground. Stockholm, Scandinavian Colour Institute, 1996
16. Mumford, Lewis,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Mariner Books, 1968
17. Barthes, Roland, La Chambre Claire. notes sur la photographie, 1980
18. Lacy, Suzanne,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Newyork Thames and Hudson, 1991
19. <http://www.echelman.com/>
20. <http://practicalandrogyny.com/2011/06/25/the-neck-cube-symbol-for-androgyny/>
21. <http://www.dezeen.com/>
22. <http://www.luzinterruptus.com/>

[논문접수 : 2016. 04. 20]

[1차 심사 : 2016. 05. 20]

[2차 심사 : 2016. 05. 25]

[게재확정 : 2016. 06. 10]